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6. 10 통권 제22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10
1996
제22호

권두언 -----

통일: 기대와 현실의 괴리 • 황의각 2

특별기획 -----

통독 6주년 기념 지버트 박사와의 대담: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정순원 4

초 점 -----

무장 간첩 사건과 남북 관계 전망 • 김욱 10

시사논단 -----

통일 한국에 있어서의 사유화 방안의 모색 • 정형근 18

북한의 노동보수제: 초기 산업화 시기의
도급제를 중심으로 • 김연철 41

나진 · 선봉지대 투자 포럼의 결과와 전망 • 이찬우 53

통일다리 -----

북한 영화 • 이우영 79

북한경제 -----

북한의 건설업 • 양법직 85

북한동향 -----

내가 본 북한 • 무라카미 사다오(村上貞雄) 103

서 평 -----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잘 살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 김인춘 107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엮음,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6년

자 료 -----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 촉진 안내서 110

통 권 제22호
 등록번호 라-6925
 공표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6년 10월 8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용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용호 백희순
 전용택 남궁영
 김정균 김 욱
 편집주간 심재철 이태섭
 편집고열 김승신 장문숙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중로구 새마을 178
 대표전화 (02)737-4005
 F A X (02)730-1771
 인 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통일: 기대와 현실의 괴리

황의각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90년대 들어서면서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동서 냉전 질서(cold-war order)의 종언과 더불어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놓고 많은 기대와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 지난 50여 년 동안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입장에서는 조속한 통일 가능성에 거는 기대와 꿈(vision)은 실로 가슴 설레이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기대와 꿈은 최근 들어 다시 90년대 이전의 상황처럼 저 彼岸의 파랑새같이 멀어져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기대와 꿈이 좌초에 부딪혀 급속히 침몰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없는 對南 무력 침투 전술 전략은 그동안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연민의 정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경제 지원 분위기에 배신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9월 18일 잠수함을 동원하여 동해안 강릉으로 침투해온 무장 공비의 도발은 우리 모두의 對北 화합과 경제 협력의 기대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6·25 동족 상잔의 역사로

조성된 남북한간의 친예한 대립의 질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다. 어리석고 무모한 북한 지도부의 대남 도발 행위는 남북한 관계의 화해 조성 기초를 종전보다 더 격화된 대립 분위기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어, 남한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고 지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한 화합과 종국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되리라는 남한 사회에 팽배되어 있던 일반적인 지혜가 틀렸다는 사실이 이번 북한의 무장 도발에 의해 뚜렷해졌다.

남북한간의 화해와 통일, 그것은 우리 한민족 모두의 소원이자 꿈이다. 그러나 이 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북한 지도부의 정책과 의식의 변화이다. 이미 실패로 입증된 '사회주의 노선'과 소위 '우리식 자급자족주의 경제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세계의 '자유민주주

의 시장 경제 노선'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북한 지도부가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같은 의식 전환의 출발은 북한 경제의 과감한 대외 개방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과 북한 주민의 팽배된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지도부의 의식 전환은 진정한 민족(또는 동포)애를 갖는 자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비방할 때 걸핏하면 그들의 공산주의 원리와는 배치되는 민족주의를 들먹이는 발언을 일삼아왔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같은 민족인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 또는 일본과의 협상과 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남한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없이 북한과 미국 또는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결코 발전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북한 지도부는 갖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 원칙이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에 두어져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고 보다 진실되고 실용적인 자세로 바뀔 때, 비로소 서방 경제와의 교류 확대 및 사회 경제 후생의 증진과 안정의 질서가 이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서 뒤에 있는 정치적 비전(vision)은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만큼이나 중요하다.

한편, 남한에서도 통일을 위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통일의 준비는 우선 남한 내부의 안정과 계층간의 소득 격차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

남한 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선망하는 사회가 되지 않고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또 통일이 닥쳐왔을 때 지불되어야 할 엄청난 직접 및 간접적인 통일 비용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통일 기금을 비축해나가야 않으면 안된다. 통일의 시기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아마도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 전후 5년 안에 남북한은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북한 사회도 대화를 수반하면서 경제의 개선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도 심화되고 있는 사회 계층간의 소득 격차와 이기심으로 야기되는 사회 불협화음의 장벽을 깨고 보다 폭넓은 동포애와 선진 의식이 자리잡는 사회로 발돋움해야 한다. 남북한 국민들간에 상호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이 축적되고 서로 뭉칠 때,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이 이룩된다. "그 땅 한반도"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에스겔 37:22)

1) 원문에는 '이스라엘'로 되어 있는데, 필자가 '한반도'로 바꾸어 놓았다.